

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농촌

2020.2.11.

“농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,
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 있습니다.”

—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대통령 모두발언 (‘19.12.12.) —

보고 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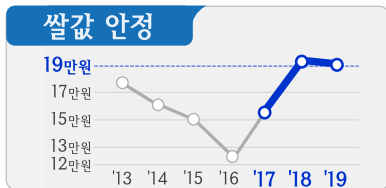
- I 핵심정책 추진성과
- II 농업 일자리 현황 분석
- III 농업 · 농촌 일자리 지원
- IV 공익직불제 안착



핵심정책 추진성과

현안을 해결하고, 농정 틀 전환의 기반을 다졌습니다.

- 쌀값 회복, '18년 농가소득 4천만 원 돌파



-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(AI, 구제역도 미발생 중)

- 추가 부담 없이 쌀 관세율 513% 확정

- 농업계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 법률 제정('19.12.27)

* '20년 예산 2조 4천억 원('19년 대비 1조원 증가)

- 강화된 농약사용 기준(PLS) 도입 등 안전성 제고

* 농약 판매량 : ('18) 17,808톤 → ('19p) 16,334 (8.3% ↓)

-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전국 거점 본격 조성

*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('19.12월 상주·김제 착공 / 고흥·밀양 설계 중)

“2020년에는 산업과 지역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,
공익직불제 안착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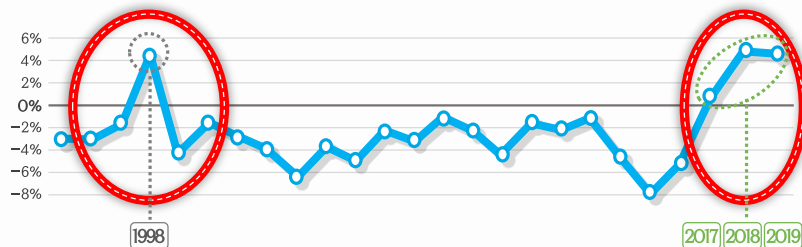
농업 일자리 현황 분석

농업 · 농촌의 일자리에 주목할 때입니다.

☑ '17년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12만 2천명 ↑
* ('16) 1,273천명 → ('17) 1,279 → ('18) 1,340 → ('19) 1,395

☑ 고용이 회복된 '19년에도 5만 5천명 ↑

[농림어업 취업자수 연 변화율(1995~2019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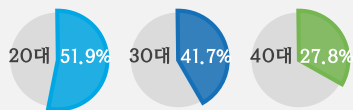


☑ 베이비부머(711만명)의 귀농귀촌 등 사회경제적 흐름

[농업의 발전 가능성]

영농종사 이유

농업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선택



2040 파프리카 농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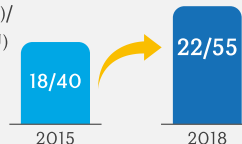
2040세대
파프리카 수출농가
연평균 매출
약 2억 6천만 원

☑ 농업 구조변화가 고용 여력 확대

[법인화 · 전문화]

농업법인 고용

농업법인(천개소)/
상용근로자(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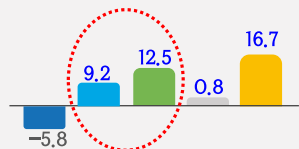


세대마다 농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릅니다.

2040세대

직업으로서 농업

[2040세대 고용 변화]
* '17~'19년 증감(천명)



■ 자영자 ■ 무급가족종사자 ■ 상용·임시근로자 ■ 일용근로자 ■ 합계

■ 취업·승계 등 미래 창업 준비

■ 기술집약형 농업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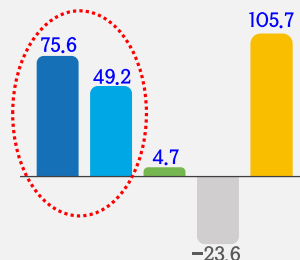
■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유입

*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생 중
비농업계 출신이 75.3%

5060세대

은퇴 후의 삶

[5060세대 고용 변화]
* '17~'19년 증감(천명)



■ 전원생활과 낮은 생활비
(75~80% 수준)

■ 소규모 과수원 또는
채소재배(텃밭) 선호

■ 영농 규모 확대보다
병원 등 생활여건에 관심

청년의 성공적인 창업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필요

농업 · 농촌 일자리 지원

핵심과제1

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

핵심과제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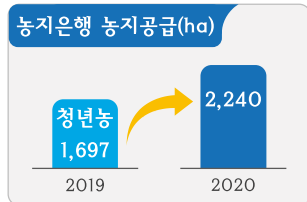
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

2040 세대의 창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.

창업농 애로사항은 농지 및 시설 확보(58.2%), 수준에 맞는 교육 부족(46.1%) - 갤럽조사('20.1월)

농지 · 시설 · 판로 지원 강화

- '유휴농지 개발-임대 시범사업' 등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 확대



- 임대형 온실(30개소) · 스마트팜(혁신밸리 4개소 + 지역특화 2) 확대
- 청년 특화 직거래 마켓* 발굴 · 지원, 온라인 판매 컨설팅
* 청년농의 마케팅 계획을 공모방식으로 선정 · 지원(신규)

체계적인 창업 · 준비 지원

-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심층 창업 컨설팅 신설
* 경영 + 품목 동시 컨설팅 → 최적 투자방식과 필요 역량 자문
- '중급에서 고급'으로 문제해결형 스텝업 기술교육과정 확충

교육과정(예시 : 파프리카)



온실 환경요소 제어 및 양액 배합 · 관리 기술 필요



전문가 교육



개별농장 진단 · 지도



학습조직 내 경험공유

기술과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.

농식품펀드 투자(18년 까지 60억원)를 받은 '마켓컬리'는 매출확대(16: 17억원 → '19p: 374), 고용 창출(381명), 해외투자 유치

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 확대

- 창업단계(스타트업)에서 잠재력 있는 경영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'영 파머스 펀드' 신규 조성 ('20년 100억 원 규모)

* 초기자본을 3억 원 이내 소규모로 투자, 전문컨설팅 지원

- 성장단계(스케일업)에서 규모화된 경영체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'징검다리펀드' 신규 조성('20년 215억 원)

영 파머스 펀드

'20년
100억원



청년농 또는 청년협업 경영체 지원

스마트농업 기반 조성

- 작물 생육 · 환경 빅데이터 수집 · 제공 플랫폼 구축
→ AI기반 서비스 개발 · 보급(토마토, 딸기)

- AI 기반 완전 자동화
스마트팜 개발 R&D 추진
(3,800억 원 규모, 과기부 협업)

노지 스마트팜 모델



자율비행드론(적외선센서) 작물 생육상태 실시간 체크

농식품 수출 확대로 시장을 넓히겠습니다.

“한국 딸기가 당도가 높아 베트남에서 인기인데 쉽게 물러져 상품성이 떨어져요” – 현지 바이어

신남방 → 시장 선점

■ 스타 품목 수출 걸림돌 해소



수출물량 부족 : 공동 육묘장 운영, 기형과(果) 저감
품질 저하 : 선도유지 포장재 · 설비 보급



기술애로 : 수출농가 전문교육 → 수출국 선호규격 생산

■ 한류 활용 마케팅, 현지 식문화 연계 수요처 발굴

* 태국(K-CON 연계), 베트남(음식문화축제)

신북방 → 시장 개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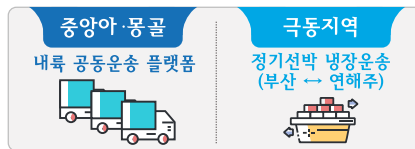
■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거점 2개국(카자흐스탄+1)에 시범온실 구축

* '18년 스마트팜 수출 9천7백만달러 중 신북방 국가가 76%(7천4백만달러)

■ 청년 해외개척단(몽골·카자흐·러시아 53명), 거점도시 홍보판매관 운영

■ 공동운송시스템 시범 도입

* 물류업체가 수출업체 물품을 모아
컨테이너 단위로 차량·선박·철도 운송



농업 · 농촌 일자리 지원

핵심과제1

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

핵심과제2

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

5060 세대의 체계적인 귀농 준비를 돕겠습니다.

귀농 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(42.8%)가 많고, 정보 획득에 어려움(27.6%) 호소 - '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

교육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귀농 교육 중점 개선

— 접근성 제고 —

- 특·광역시(8개 시), 기술센터 미설치 지역(13개 시)은 도시농협에 귀농교육 신설
- 시·군 기술센터 교육 확대(70개 시·군 → 154개)

— 품질 향상 —

- 도시농협의 전문성을 살려 자산관리·세제·금융 등 특화과정 운영
- 기술센터 교육은 농촌 이해·귀농설계 교육 확충

귀농귀촌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

- 농정원(2.2만명)과 기술센터(1.4만명) 교육생 DB 연계 → 각 지자체별로 지원정책, 귀농지역 품목 탐색, 일자리·주거 등 정보 제공

농촌에 따뜻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

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

사회서비스 제공

-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('20년 104개소),
보건·의료(보건소)·돌봄·교육(도서관) 등 복합 지원

다산면 행정복합타운(고령군)

행정(면사무소), 보건·의료(보건소, 치매쉼터),
문화(문화복지센터), 교육(도서관) 기능을 복합 조성



- 농촌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는 지역공동체(협동조합,
사회적 농장 등)를 통해 공급·보완(10개소 모델개발·시범지원)

로컬푸드 활성화

- 시민사회-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먹거리 순환
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푸드플랜 수립 지원('20년 누계 64개)
-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·식당에서 중소농,
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('20년 누계 680곳)
* 세종청사, 김천·진주·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

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(세종시)

954개 중소농가, 455품목 누적 매출 769억원('15~)
요리교실 등 싱싱문화관 운영





공익직불제 안착

공익직불제,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.

농업계 · 국회 · 정부가 한마음으로 얻어낸 결실, 올해에만 50여 차례 폭넓게 의견 수렴

* 작년 연말 법안 국회통과 후, 1~2월 중 농업인 · 소비자단체 · 지자체와 직불제 개편 협의회, 지역단위 설명회 등 실시



공익 기능 강화

환경 · 생태 보호,
농촌공동체 복원



포용성 강화

중소규모 농가
소득안정



수급 균형

식량자급률 제고,
쌀 공급과잉 개선

환경·생태 보전 등 농업·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직불제로 자리매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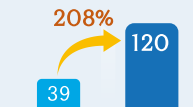
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.

포용성이 강화된 지급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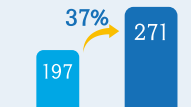
- 소농직불금 : 0.5ha이하 농가에 연 120만 원 수준 검토
(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)
 -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, 농외 소득 일정액 미만 등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급
- 면적직불금 :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 지급
논·밭 진흥지역은 단가를 통일

[개편 전·후 유형별 농가 지급액(예시)] *단위: 만원

소규모 농가(0.2h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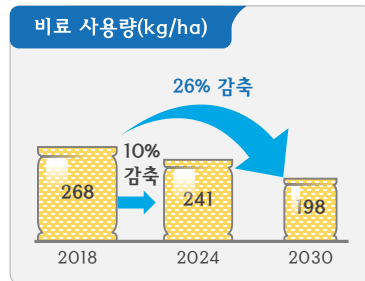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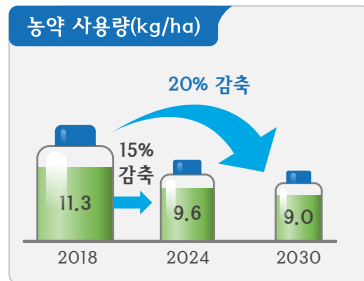


평균 경영규모 농가(1.56ha)



공익증진 활동

-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 기준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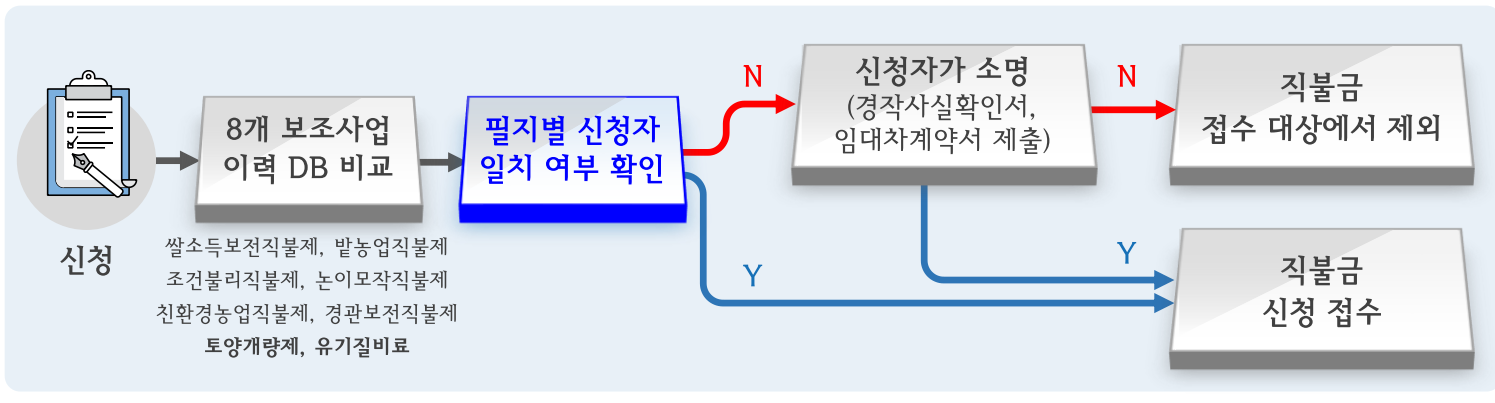
- 공익증진 활동 범위를 확대하되, 현장 수용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활동 수준 제고

* (기존) 농지 유지와 관리, 농약·비료 사용기준 준수 →
(확대) 영농폐기물 수거, 영농기록, 교육이수, 공동체 활동

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.

사전 점검

-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사후 점검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



농지 관리

-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(기준: 신규취득 3년 → 개선: 5년 내 + 불법임대 우려 농지 추가)
- 불법임대 가능성이 있는 관외 경작자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농지은행 수탁 촉진*
* 수탁 시 기존 임차관계 인정, 수탁 농지 면적 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병행

2020년,

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

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